

# 저PBR주에 몰린 ‘빚투’ 개미… 코스피 신용잔고 1兆 늘었다

19일 신용거래용자잔고 19.3조  
유가증권시장에만 10.4조 기록  
外人, 저PBR주 순매수 유입 지속  
“가파른 상승세에 변동성 유의”

국내 증시가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자 ‘빚투(빚내서 투자)’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저주가순자산비율(PBR)주가 몰려 있는 코스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9일 기준 신용거래용자잔고는 19조2995억원으로 연초보다 약 1조8000억원이 늘어났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에만 10조3798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 14일부터 매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최근 한 달 사이에만 약 1조원이 증가했다.

올해 저PBR주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증시가 가파른 반등세를 보이자 개미(개인투자자)들의 ‘빚투’도 몰리는 모습이다. 코스피 지수는 21일 약 2년 만에 2750선을 넘어서면서 2754.86에 마감했으며,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예고했던 1월 17일 이후로는 13.09%나 상승했다.

특히 외국인들이 저PBR주를 중심으로 순매수세 유입을 지속한 것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권을 살펴보면 반도체 관련 종목을 제외했을 때, 현대차(2조936억원), KB금융(6117억원), 기아(4726억원), 우리금융지주(3179억원), 삼성생명(3126억원) 등 저PBR 관련 종목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18일 기준 코스콤 체크에 따르면 증권, 보험, 금융, 운수장비 등 저PBR주



/유투이미지

가 포진된 업종들의 신용잔고가 급증했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금융업은 23.06%, 증권 24.89%, 보험은 57.80%가 올랐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1위를 기록했던 현대차를 비롯해 기아를 담고 있는 운수장비 업종의 신용잔고도 22.60%로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도 밸류업 기류에 편승하고자 관련 이벤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6월 30일까지 신용용자 7일물 이자율을 0%로 하는 ‘신용용자 1~7일물 이자율 ZER 0%’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알렸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우량 상장사 중심(a-c등급, 저PBR주) 신용용자 종목 제공으로 시장 리스크 부담이 축소되고, 통상 시장 상황에 따라 비중 조절을 하고 있다”며 “시장이 좋을 때는 신용을 써서 레버리지로 수익을 더 내기 때문에 밸류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투자자들에게도 나온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교보증권에서는 오는 4월

말까지 신규 신용 매수에 대해 180일간 조건 없이 신용거래이자율을 연 4.5%를 적용하고 있으며, SK증권도 오는 29일까지 30일간 연 4.5%의 신용 단일 금리를 제공한다. 한화투자증권도 내달 30일까지 신용대출금리를 90일간 연 4.8%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다만 시장 내에서는 저PBR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와 가파른 증시 상승세에 따른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용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투자 관심이 높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면서도 “단기간 급등한 국내 증시에 대한 과열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반대매매를 유의해 신중하게 투자하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대매매란 증권사 고객이 신용용자 등으로 주식을 매입한 뒤 빌린 돈을 약정 기간 내 변제하지 못했을 때, 투자자 허락 유무와 관계없이 주식이 처분되는 것을 의미한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예탁원, 전자투표 서비스 활성화 지원

지난해 전자투표 행사율 10.21%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총 10일 전부터 전날까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주주는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의결권을 손쉽게 행사할 수 있다. 또 물리적인 거리의 제약으로 인해 주총 개최지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수의 회사가 특정일에 주총을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주주는 각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탁원은 국내 최초로 전자투표·전자위임장서비스를 도입했다. 지난 2010년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2015년에는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성원과 주주들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개통했다. 2020년에는 전자투표시스템(K-VOTE)을 전면 재구축해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에는 K-VOTE 사이트와 연동 가능한 전자고지서비스(e-Notice)를 추가했다. e-Notice는 직전년도에 전자투표를 이용했던 주주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페이를 통해 주주총회 안내사항을 제공해 주주들의 권리행사 불참을 막고, 전자투표 이용을 유도한다.

주주 수가 2만 명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전자투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수료 개편도 시행한다.

/원관희기자 wkh@

##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자산배분 전략 활용

변액펀드 75.5% 해외자산에 투자  
업계 평균 해외투자 비중 웃돌아

미래에셋생명의 변액보험은 글로벌 분산 투자 원칙에 따라 자산을 보다 안전하고 다양하게 배분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실제로 지난 2023년 4분기 기준 미래에셋생명은 변액펀드 75.5%를 해외자산에 투자해 10.4% 수준인 업계 평균 해외투자 비중(당사 제외)을 압도적으로 웃돌았다.

미래에셋생명은 미국, 일본, 인도 등 해외 국가뿐만 아니라, 인덱스, 글로벌 반도체, 컨슈머 등 섹터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투자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 변액보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전세계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와 관리를 원하는 고객을 위한 포트폴리오펀드 ▲향후 성장

산업에 투자를 원하는 고객을 위한 성장주펀드 ▲주가지수의 성과를 추종해 시장수익률 수준의 성과를 원하는 고객을 위한 인덱스펀드 ▲특정 국가나 지역에 투자하여 자본 수익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지역펀드 ▲채권의 이자 수익과 매매차익 추구를 원하는 고객을 위한 채권펀드 ▲해외채권의 수익과 달러 강세 시 추가 수익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환오픈 채권펀드 등의 펀드를 제공 중이다.

위대한 미래에셋생명 변액운용본부장은 21일 “미래에셋생명은 업계 최초로 변액보험펀드에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활용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변액보험은 해외 투자를 비교سه로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자산가들이 투자 목적으로 변액보험 상품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 “올해 자기자본 1兆 도약 원년 삼을 것”

한양증권, 임재택 대표이사 4연임  
2018년 취임이후 지속적 성장세  
“디테일한 강한 증권사로 발돋움”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가 4연임에 성공했다.

한양증권은 21일 오전 여의도 본사에서 제69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임 대표이사의 재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한양증권 이사회는 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추천하며 “회사 내부사정에 정통하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에 적합한 전략 수립 능력과 추진력을 겸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에 부정적 이슈가 많았음에도 철저한 리스크관리와 원칙중심 경영으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강조했다.

2018년 임 대표의 취임 이후 한양증권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취임 당시 2689억원이던 자기자본은 4898억원으로 82% 증가했다. 앞서 임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2024년을 자기자본 1조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막을 여는 원년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더불어 취임 이전 6년 간 연 평균 80억원이던 영업이익도 평균 499억원으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

/한양증권

로 7배 가까이 상승했다. 업계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난해에도 영업이익 25%, 당기순이익 46% 증가를 기록하는 호실적을 거뒀다. 2021년에는 창사 이래 최초로 영업이익 100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최근 중요시 되고 있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은 6년 간 평균 13%로 업계 최상위권이다. 그리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부채 비율도 0%를 유지함으로써 강화된 리스크관리 역량을 보이기도 했다.

조직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뤄졌다. 2018년 227명이던 임직원 수는 현재 51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 사이 10본부 19부서에서 24본부 77부

서로 조직 규모가 확대됐다. 비즈니스 경쟁력과 수익력, 브랜드밸류(Brand Value) 등 무무형적 가치도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다.

임 대표는 주주총회 현장에서 “지난 6년 간 한양증권의 성장은 재단의 전폭적 지지 하에 전 임직원이 각자의 전장에서 치열하게 일한 결과물”이라며 “진정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며, 열정을 지닌 인재들이 몰려오는 가장 역동적이고 생명력과 디테일이 강한 증권사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임 대표이사는 1958년생으로 신한금융투자마케팅본부장, 아이엠투자증권 대표이사, AJA인베스트먼트 부회장, GB프라이빗에쿼티 부회장 등을 두루 거쳤다. 이후 2018년부터는 한양증권의 수장으로 자리를 지켜왔다.

한편, 한양증권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보통주 1주당 일반주주 800원,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 700원을 배당하는 차등배당안을 함께 의결했다. 우선주의 경우 1주당 일반주주 850원,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 750원을 배당한다. 사내이사로는 진중신 Biz조직 총괄 상무가 신규 선임됐으며, 박종민 사외이사는 재선임됐다. /신하은 기자 godhe@

## 거래소, ‘KRX금시장 개설 10주년 세미나’

10주년 성과 공유·발전 방향 모색

한국거래소는 21일 오전 19시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1층 컨퍼런스홀에서 ‘KRX금시장 개설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KRX금시장 홍보대사인 배우 진선규와 금시장 회원 증권사 및 귀금속 실물사업자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KRX금시장 10주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세미나에 앞서 진행된 공로패 수여식에서는 배우 진선규(홍보대사), 한국투자증권(우수유동성공급자(LP)), 한국금거래소(우수실물사업자), 한국투자신탁운용(금현물 ETF 개발) 등이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경식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KRX금시장은 그간 우리나라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한 정책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며 “개장 시 대비 거래규모 약 12배 증가, 금시장 계좌수 110만개 돌파, 국제시세와의 괴리를 축소(최대 0.9% → 0.1%~0.2%) 등 10년만에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주제발표 및 패널 토의에서는 송종길 한국금거래소 대표가 ‘국내 금 실물시장에서 KRX금시장이 갖는 역할과 의미’에 대해 국내외 금 실물시장 수급요인과 참가자 현황 및 KRX금시장을 통한 국내 금 실물사업자의 성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